

새정치, 분당의 길 들어섰다

박준영 전 지사 탈당 “黨사망 선고” ... 신당 움직임 본격화
혁신안 발표 뒤 원내교섭단체 구축 목표 ‘9월 거사설’ 나온다

호남의 3선 광역단체장 출신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전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5면〉

박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7월16일 제3차대 통합민주당 합류를 위해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8인 모임 멤버로서 탈당했던 것을 거론, “7년 전 오늘이 민주개혁세력이 하나가 돼야겠다고 해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을 선언

했던 날인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현 모습은 민주당 분당 이후 누적된 적폐의 결과”라며 “국민과 당이 새정치연합을 버렸으며, 새정치연합은 변할 기미가 없다”고 비판한 뒤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월초 국민이 신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당원들의 말에 놀랐으며, 열성 당원들이 당을 버리고 있음을 알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혁신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게 전혀 없다. 사무총장 폐지도 열린우리당 시절 다 했던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동안 신당 창당의 밑그림을 그려온 박

전 지사는 탈당 후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또 다른 호남의 중진으로 신당 창당론을 강조해오던 박주선 의원이 광주 일보와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9월에 나오는 혁신안에 진노 패권주의 정산과 중도·개혁·민생·실용 정당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다면 탈당 및 신당 참여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 작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신당 참여 현역 국회의원 규모에 대해 “적어도 20~30명은 될 것이며 40~50명을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해 신당이 예상 외의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 중

인 무소속 전정배 의원도 기성정치인의 합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폭 넓은 신당 창당 작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탈당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4·29 재보선 패배 후 야권을 엄습했던 분당론이 가시권 내로 들어오면서 새정치연합에는 긴장감과 함께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던 과거 야당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진노와 비노가 결국 ‘탄산림’을 차리게 되는 것이냐는 말마저 돌고 있다.

특히 비노그룹이 원내교섭단체(20명) 구축을 목표로 9월에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거사설’마저 돌고 있어 혁신안 후폭풍과 맞물린 원심력 강화로 새정치연합으로선 제1야당의 입지를 위협받으며 내우외환에 처하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 많고 학생 적은 전남교육 ‘비상’

교육부, 학생수 기준 교부금 배분 기준보다 450억 가량 줄어든 듯

시·도교육감協, 공개토론 요청

전남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줄이고 학생수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남도교육청의 교부금은 기존보다 수백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육부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기존 배분기준은 대략 학교수 50%, 학급수 14%, 학생수 36%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학생수를 50%→36%로 낮추고, 대신 학교수를 36%→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인건비, 학교신·이설경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등을 교부금으로 3500억원 가량 배분받고 있다. 이를 개정안의 산정기준을



1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에 참석한 황우여(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장만채(맨왼쪽) 전남도 교육감, 장휘국(오른쪽 세번째) 광주시교육감이 자유학기제 부스에서 전자드럼을 즐기고 있다. 행복학교박람회는 ‘꿈, 끼, 행복’을 주제로 전국 115개 학교가 참여해 18일까지 사흘간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정을 선보인다. > 관련기사 6면 /여수=나명주기자 mina@

단순 적용하면 약 45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658만6000원에서 973만8000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000원에서 6

만3000원으로 많아진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남 농·어촌지역의 교육기반은 급속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도(道) 단위 교육청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시·도교육

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여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아로마라이프즈

제5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32개 팀 참가 9월 6일 개막
두 달간 열전 치러

광주일보사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인 야구 활성화 위해 ‘아로마라이프 제5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리그로부터 추첨받은 32개 팀이 참가하며, 경기력을 기준으로 ‘무등’

‘광일’ 2개 그룹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아름다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가 광주일보와 함께 대회를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 기간 : 2015년 9월 6일 ~ 11일 (매주 토·일요일)
- 대회 장소 : 광주·전남 지역 지정 구장
- 경기 방식 : 무등·광일 토너먼트
- 시상 : 각 토너먼트 우승·준우승·공동 3위 감독상·최우수선수상·우수선수상 등
- 대회 및 출전팀 정보 : 광주일보 홈페이지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 062-220-0541

光州日報社

남도 문화 관광지 체험·팸투어 상설화

市, 광주U대회 후속조치 마련

광주시가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광주일보 16일자 1면)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8면〉

시는 광주 U대회에서 전 세계인이 극찬한 남도의 문화와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팸투어 등을 상설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발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목요 간부회의와 함께 ‘U대회 후속조치 추진 방안’ 토론회를 갖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은 광주 도심 역사와 자연 환경 중심의 관광상품으로 구성된 현 시티투어버스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테마형 순환 시티투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해 상설화하고 대인예술시장 별장, 예술의 거리 나비아 공동가자 등과 연계한 상품코스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 ▲금남로·충장로 문화행사 ▲전통문화관 상설무대 운영 ▲글로벌 숙박·식품 접객환경 조성 ▲금남로 명품길 조성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의 정례화·상설화, 관광의 테마별·코스별 운영은 물론 U대회에서 얻은 자긍심이 식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을 통해 발빠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A-Class

